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의안번호 169

제안년월일 : 1999. 7. 12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회

1. 주 문

- 진로쿠어스맥주(주) 입찰의혹과 관련하여 입찰결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표명함.

2. 제안 이유

- 충북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LG반도체, 충북은행, 육천조폐창이 통합 또는 폐쇄됨
- IMF이후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진로쿠어스맥주의 합병은 지역경제 악화 요인이 됨
- 지방자치시대에 기업의 사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 입찰과정은 투명하고 충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3. 참고 사항

“ 없 음 ”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LG반도체 빅딜과 충북은행 퇴출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충북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성장해온 진로쿠어스맥주가 입찰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나 도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업의 사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단 등 입찰관련 기관에서는 입찰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충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입찰진행은 투명하고도 공정한 가운데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도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충청북도의원 일동은 충북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LG반도체와 충북은행, 조폐창 등 충북지역의 큰 중심

축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남은 대기업 계열사인 진로쿠어스사마저 사라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수렁에 빠질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안정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의 의혹을 씻어주고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1999. 7. 16.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받는곳: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산업은행총재,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3정당정책위의장